

3·1절 만세소리 드높던 광주서 화합의 질주



3·1절 만세 삼창 제53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 개막식이 열린 4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김여승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대회 참가자들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만세삼창하고 있다.

사진=나명주·최현배·김진수 기자

제53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전국 2000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성황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민주화의 성지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을 출발해 금남로와 충장로 등 광주 도심을 달리는 매력과 영산강에 솟은 남도의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대회로 손색이 없었다. 제99주년 3·1절을 기념해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기록경쟁 보다는 지친 동료들 끌어주고 함께 결승점에 들어오는 등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대회를 만들었다. 봄기운을 맞으며 저마다의 개성으로 코스를 완주하며 수준 높은 대회를 만들어 준 마라톤 참가자들의 모습을 화보로 구성했다.



도심 질주 3·1절 마라톤 참가자들이 광주 도심을 달리고 있다.



완주했어요 마라톤 도착지인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완주를 자축하며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아빠! 힘내요 박호식 하프코스 참가자가 도착지점에 들어오자 아들 박용은(9)군이 마중 나와 함께 달리고 있다.



승춘보 질주 풀코스 참가자들이 승춘보 구간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빛고을마라톤 동호회 끝인도 함께 광주 빛고을마라톤 동호회원들이 도착지점을 함께 들어오며 환호하고 있다.



근육 풀어주세요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결승점을 통과한 참가자들의 근육을 풀어주고 있다.